

노동시장 개혁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전화 방안

김 대 환

인하대 명예교수

2019. 4, 25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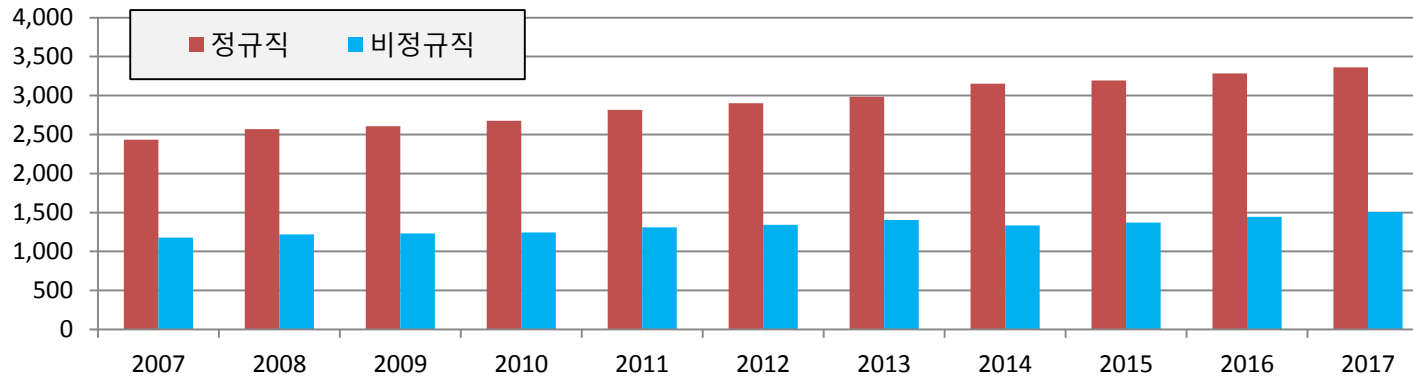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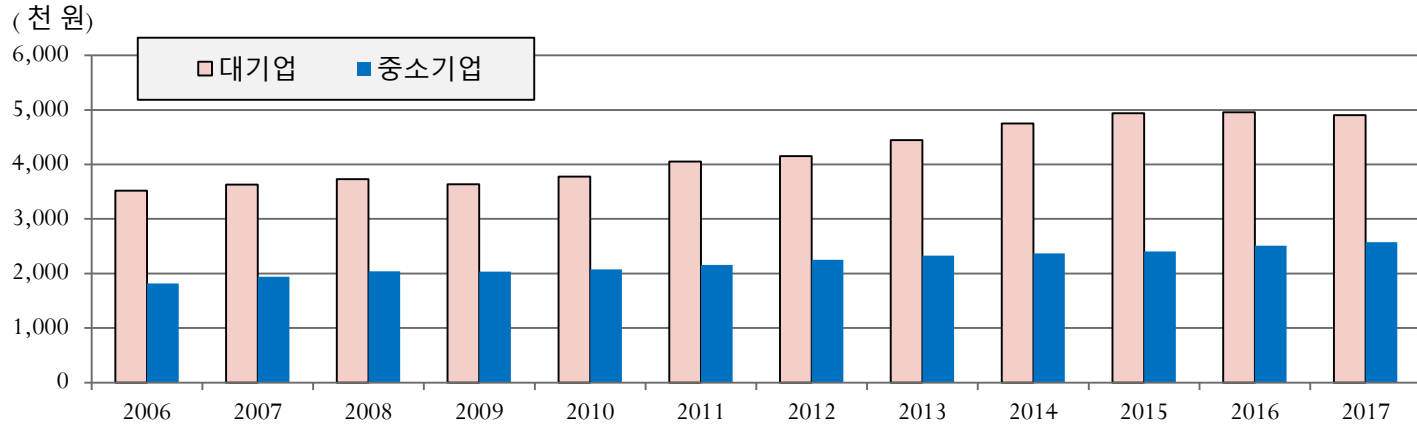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

증층적 이중구조 - 사회경제적 문제

유연안전성 - 한국적 유연안전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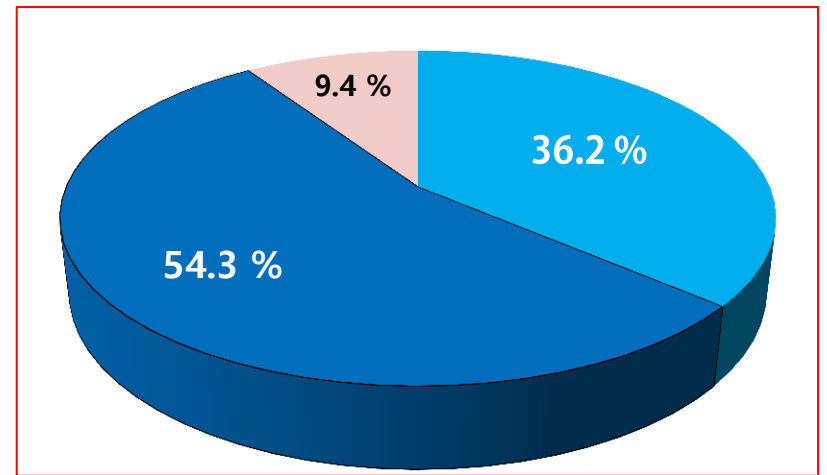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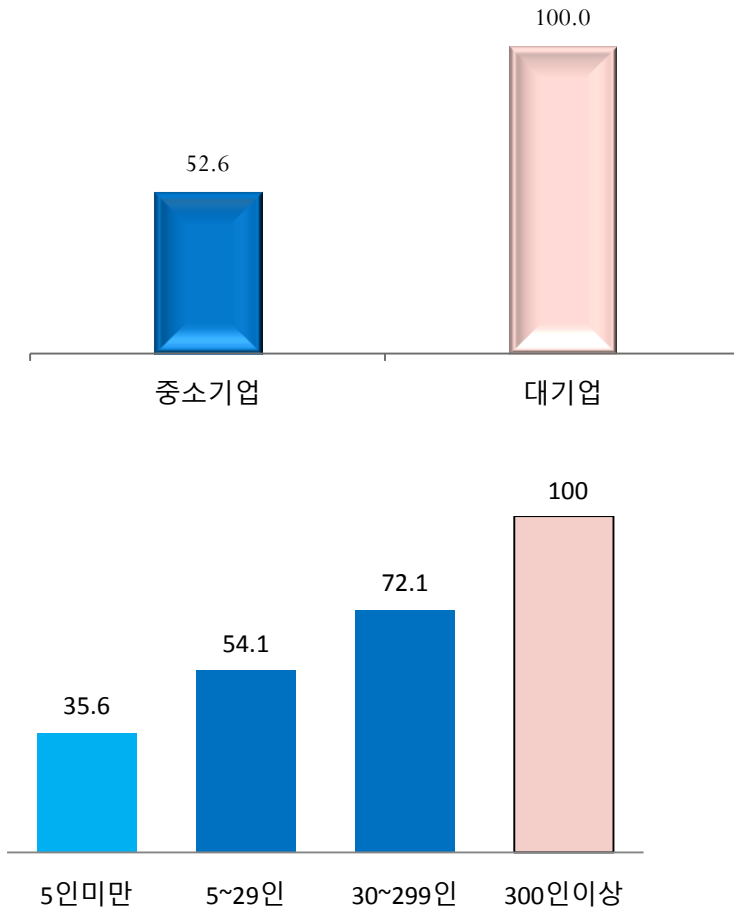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월임금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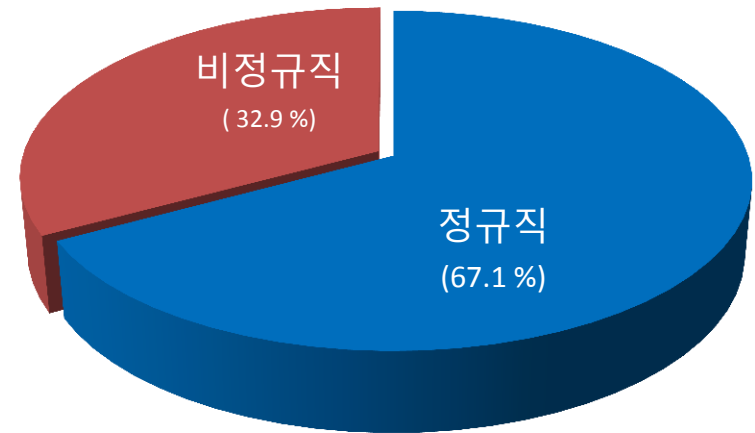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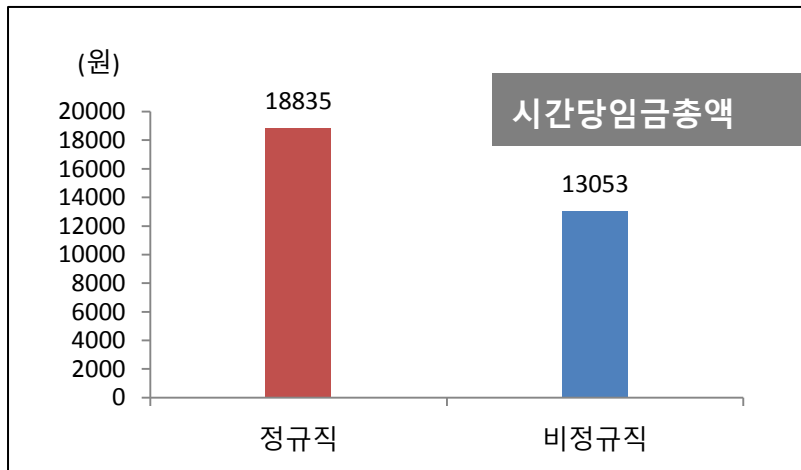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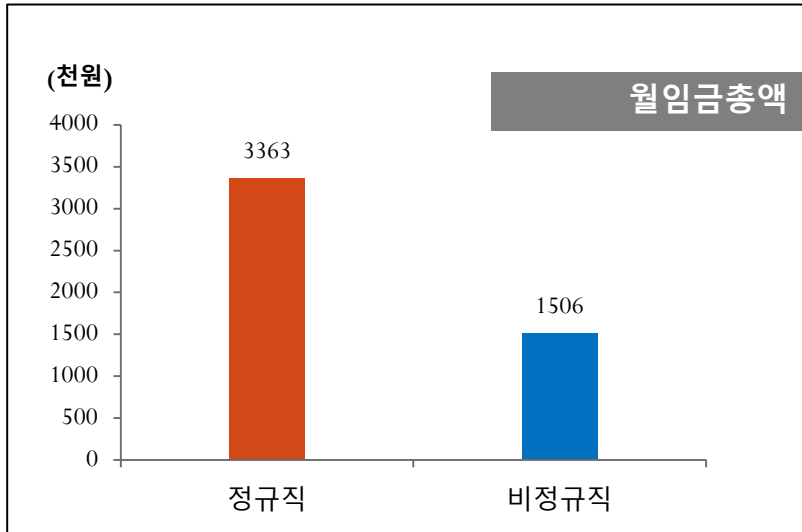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업규모별 월임금총액 비교 (2017)



자료: 고용노동부, 앞 자료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 별 임금총액 비교 (2017)



자료: 고용노동부, 앞 자료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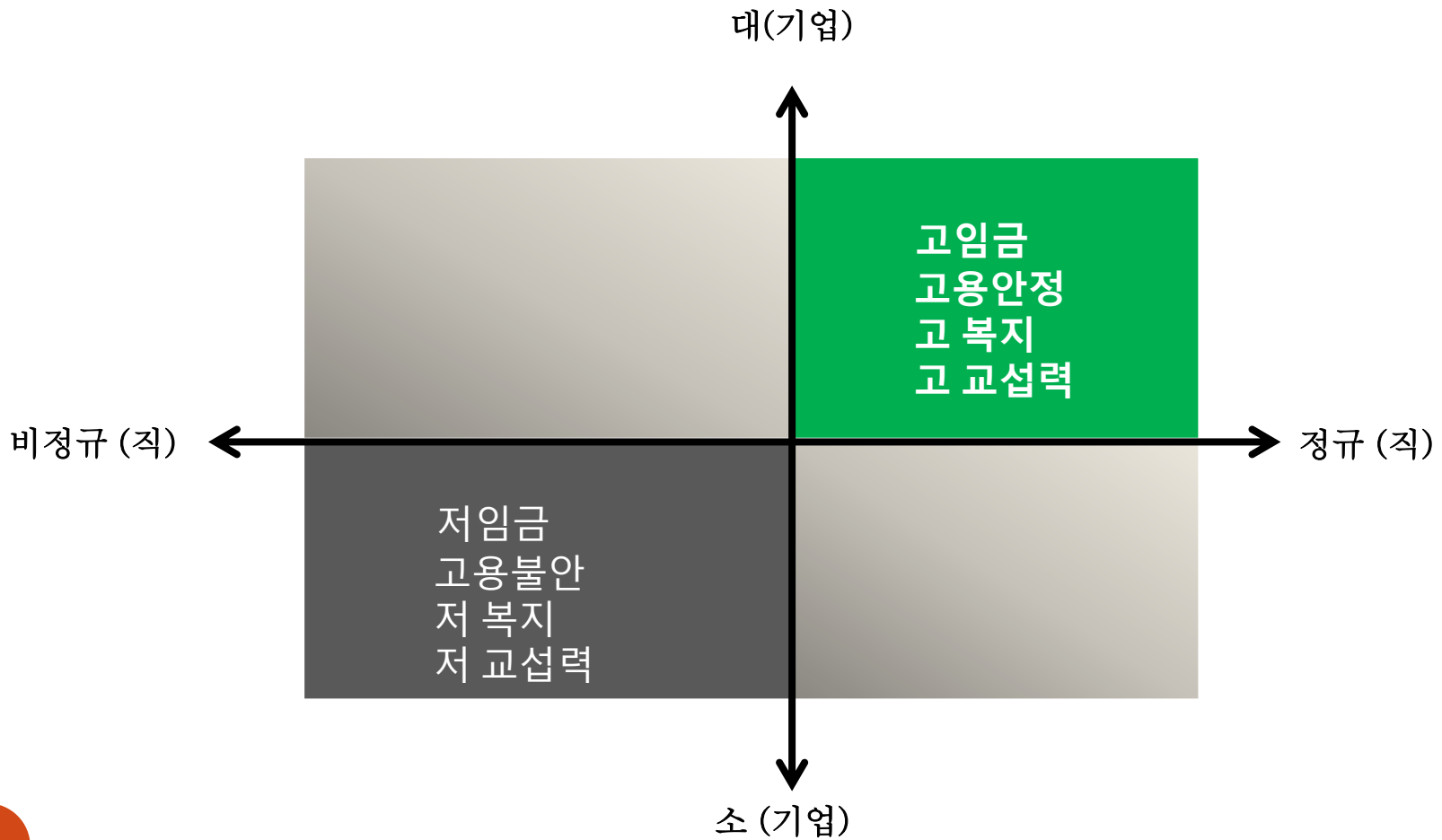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비교 (2018.08)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전체
월평균임금 (만원)	300.9 (100.0)	164.4 (54.6)	255.8
평균근속기간 (개월)	93	31	73
평균취업시간 (시간)	39.3	31.2	36.6
국민연금가입율 (%)	86.2	36.6	69.8
건강보험가입율 (%)	90.1	45.9	75.5
고용보험가입율 (%)	87.0	43.6	71.6
퇴직급여가입률 (%)	89.9	41.5	73.9
상여금수혜율 (%)	86.4	37.8	70.4
유급휴가수혜율 (%)	77.9	32.1	62.8
시간외수당수혜율 (%)	59.7	24.6	48.1
노조가입률 (% , 2017)	12.8	1.9	10.1
근로자수 (천명)	13,431 (67.0)	6,614 (33.0)	20,0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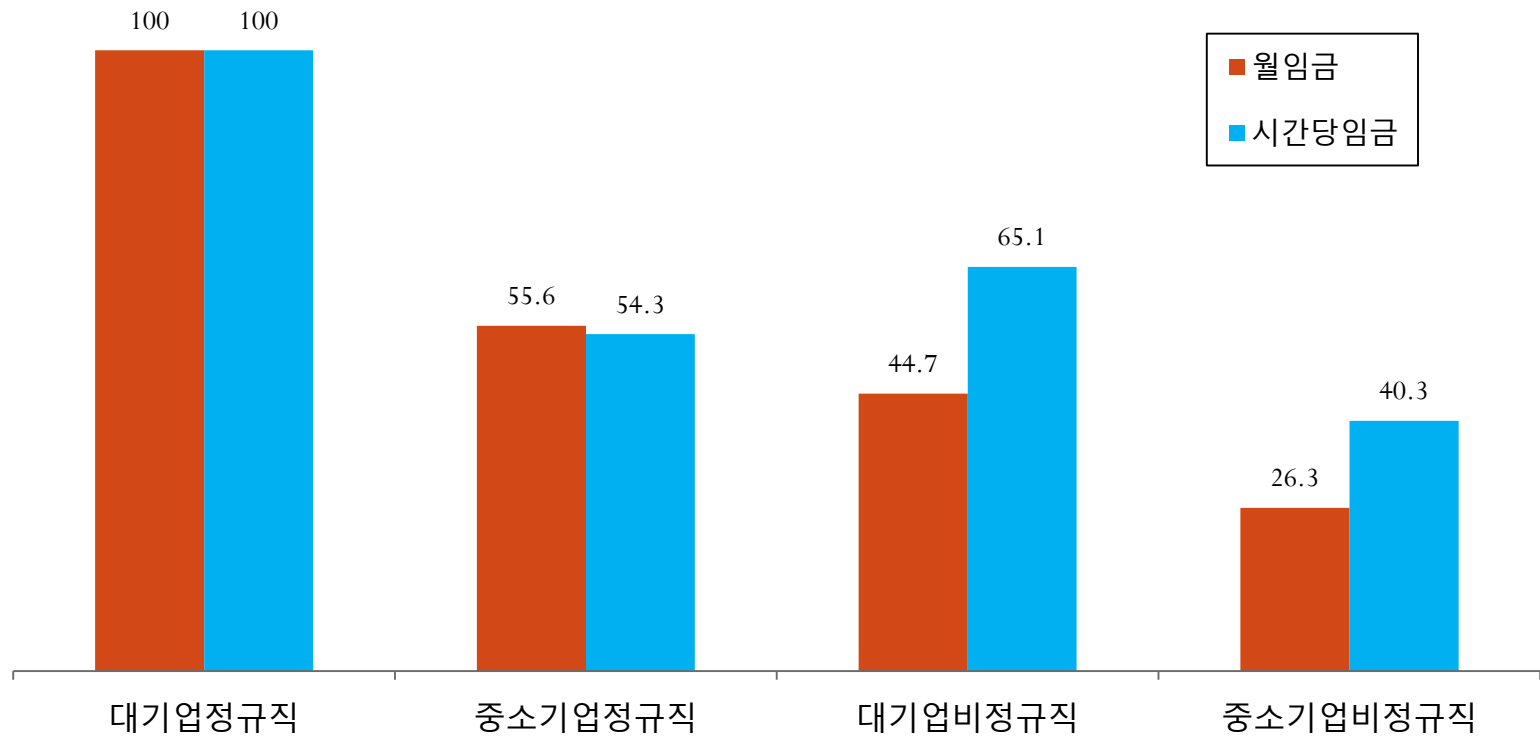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8. 8)

중층적 이중구조 - 사회경제적 문제

중층적 이중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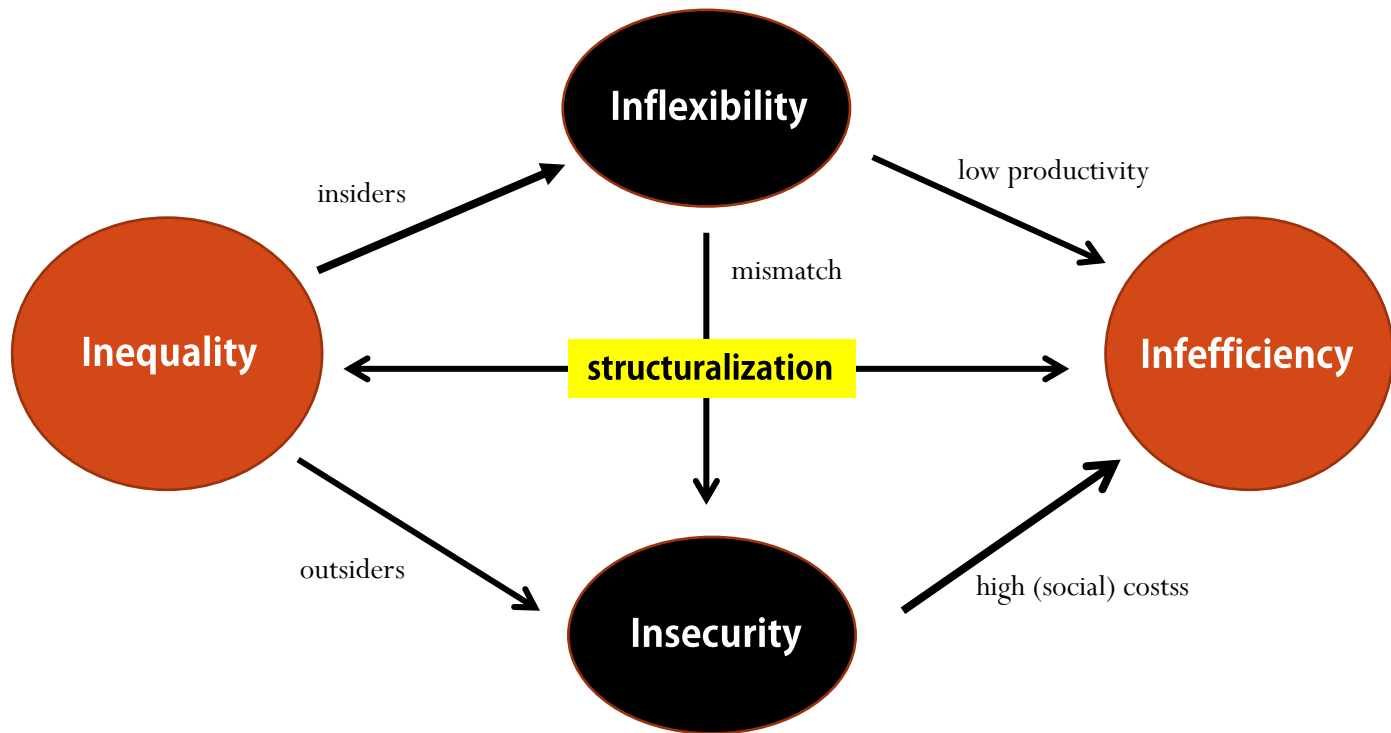


규모별, 고용형태 별 임금총액 비교 (2017)



자료: 고용노동부, 앞 자료

사회경제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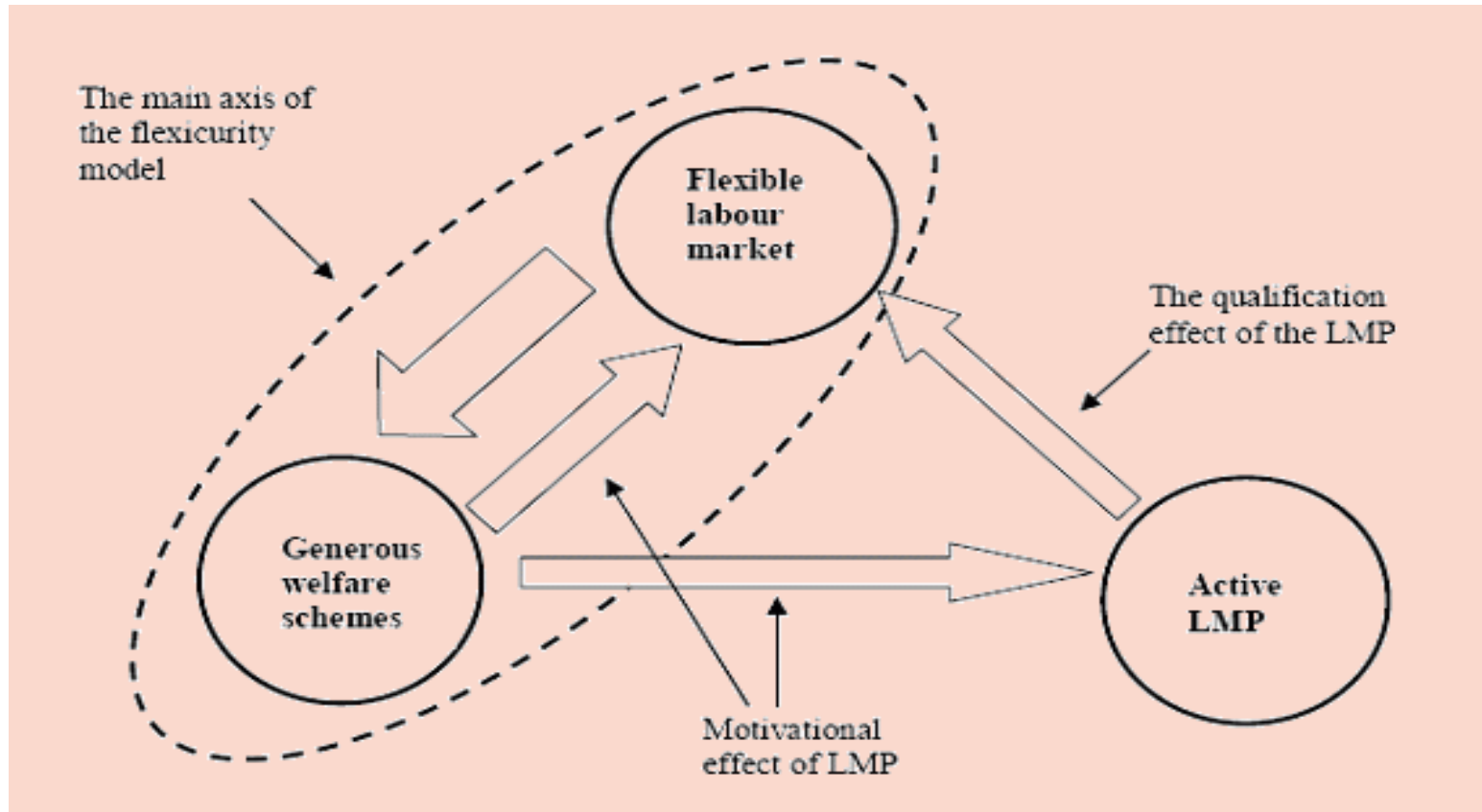


불평등 - 비효율의 악순환

-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분절, 높은 문턱으로 상호 이동(transition) 제한
 - 내부자 vs. 외부자, 근로조건(임금, 고용, 훈련, 복지, 교섭력) 현격한 차이
- 정규직 위주의 대기업+공공부문, 유리한 근로조건 교섭력 발휘
 - 내부자 논리로 노동시장 경직화 → 시장활력 저하 → 생산성 저하
- 비정규직 위주의 중소기업, 일시적 고용과 실업 회전문 → 고용보험 등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internalization) 기피 → 외부비경제(external diseconomy) → 공공(재정) 지출 증대 → 재정부담 가중
 - 기술 미스매치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 및 혁신기술 투자 기피 → 생산성 낮은 일자리 창출 유인 → 저생산성과 실적의 악순환
- 중소기업, 여성, 청년, 고령자에 비정규직 집중 → 청년, 여성 고용 걸림돌 → 시장활력 저하
 - 세대간 유동성(mobility) 저해 → 불평등과 비효율의 악순환 대물림

유연안전성과 한국적 유연안전화 모델

유연안전성 모델 (덴마크의 Golden Triangle)



유연안전화의 한국적 모델

검토와 모색 : 유연안전화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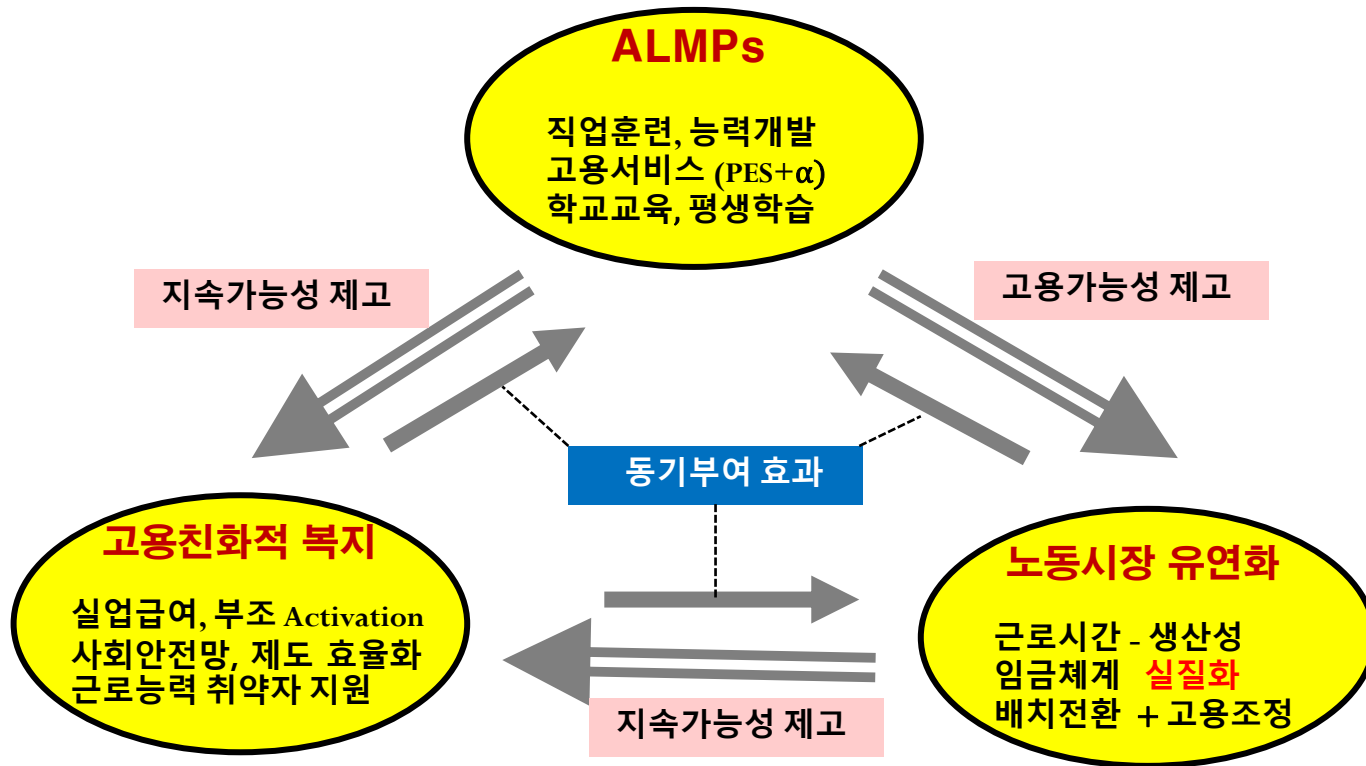
덴마크 모델(Golden Triangle)나 네덜란드 모델(Polder model)의 단순한 이식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 각국 고유의 역사-구조적 요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음 (EU 권고)
- 유연한 노동시장과 관대한 복지제도를 기본 축으로 설정
- 수량적 유연화(고용조정)를 하더라도 복지(다소 조정)로 뒷받침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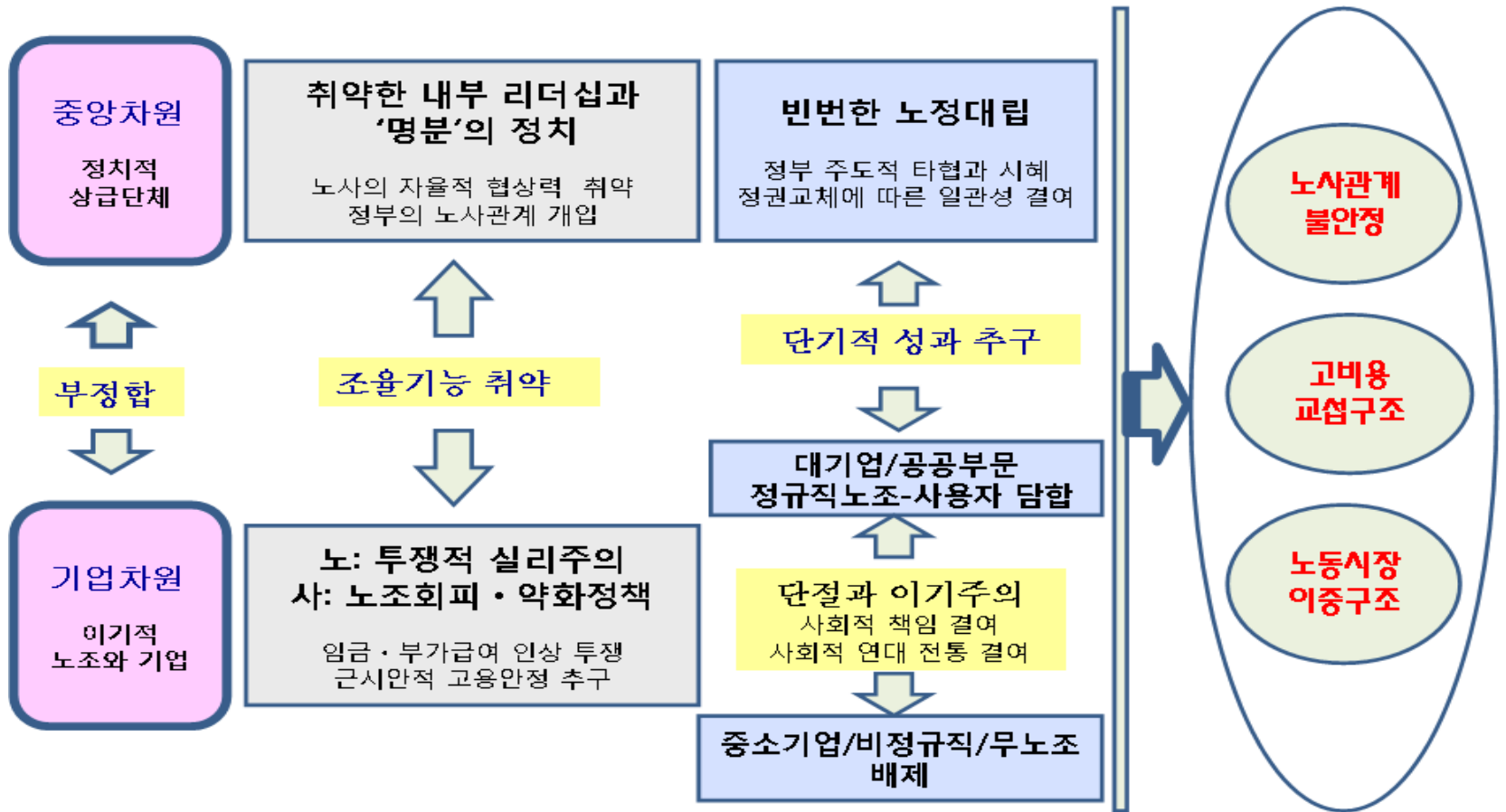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 여전히 사회안전망이 미흡, 고용조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비생산적 논쟁 우려

- **적극적 노동정책을 기본 축으로** 하여 기능적 유연화(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 근로시간 및 임금 유연화 - 사회안전망 확충
-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동성(transition) 제고** (DLM → TLM)
- 산업현장에서 **배치전환** → (잔여) 수량적 유연화 → 고용조정

한국적 유연안전화 모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사관계의 이중구조는 동전의 양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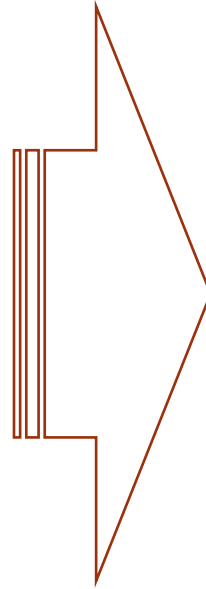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

이중구조 고착

- * 직업능력 퇴화형
- * 장시간 근로형
- * 투쟁적 이기주의형
- * 기업복지 추구형

취업기회 제약
이중구조 확대



고용-복지 친화적

- * 평생학습 제도화형
- * 일-가정 양립형
- * 사회적 연대 발현형
- * 고용친화적 복지체계형

일자리 기회확대
생산성/성장잠재력 향상

노동시장 개혁 - 유연안전화

	기업	근로자
정규직 고용	관리 용이	평생직장
연공급 임금	장기근속 충성 유도	생애주기 임금
장시간 근로	연장근로 활용	임금 극대화
기업복지	충성보상 직장가족	사회보장 보완
기업특화 훈련	생산성 향상	숙련 향상



	기업	근로자
다양한 고용형태	유연성 확보	평생고용
직무/숙련 임금	인건비 합리화	공정임금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워라밸 자기개발
사회안전망	비용 절감	생애주기별 복지
보편적 숙련형성	인력확보	고용가능성 제고

감사합니다